

키노트

키노트 1

2022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하라, 메타버스 시대 바꿔야 할 3가지

(10/13 목 09:40~10:20)



최재봉

교수
기계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교육부 LINC3.0 성균관대 사업단장,
사외이사, 신한금융지주
저서:메타버스이야기, 체인지나인, 포노사피언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대한 충격속에 혁명적 변화를 준비하던 인류에게 코로나는 대재앙이었다. 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문명속으로 강제 이동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그것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표준이 바뀌면 생각의 표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활하는 표준인류, 포노 사피언스는 무엇이 다르고 그들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미래의 주인공인 될 수 있습니다. 본 강연은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예측하고 개인과 기업이 신명명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바꿔야 할 세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키노트 2

AI Research in Industry: 네이버 사례를 중심으로

(10/13 목 13:00~13:40)



하정우

연구소장
NAVER AI Lab

공동센터장, KAIST-네이버 초창의적 AI 연구센터
공동센터장, 서울대-네이버 초대규모 AI 연구센터
공동의장, 시미래포럼

최근 10여년간 딥러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AI는 이제 연구의 영역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인프라 혹은 Enabler 기술로서 모든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 많은 기업들에서 AI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구글, 메타, MS와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자체 AI 연구 조직을 만들고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I연구는 큰 틀에서 학계와 산업계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실세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도구를 만드는 관점에서 산업계 AI연구만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본 강연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산업계에서의 AI 연구를 어떻게 정의하고 실제 연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서비스나 제품으로 이어지고 가치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최근의 화두인 초대규모 AI를 포함한 네이버 글로벌과 AI Lab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키노트 3

디지털이 빚어내는 고객경험 혁신, 서비타이제이션

(10/14 금 09:40~10:20)



안병민

대표
열린비즈랩

엔트리움(주) CIO(Chief Innovation Officer)
이노망고 발행인 / (사) 행복한성공 이사
(주)휴넷 마케팅 이사(CMO)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시시각각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변화혁신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입니다. 서비타이제이션은 '제품의 서비스화(化)'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제품'이 아니라 '제품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고객가치에 대한 전략적 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서비타이제이션의 구체적인 개념과 효용,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 방향성을 짚어보려 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그리고 고객입니다.

키노트 4

자율주행 산업과 모빌리티

(10/14 금 13:00~13:40)



정구민

교수
전자공학부
국민대학교

사외이사, 현대오토에버
사외이사, 휴맥스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

자율주행 산업은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및 서비스 산업 등 전 산업을 연계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자율주행 산업 동향을 정리하고 스마트시티 및 관련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모빌리티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자율주행-전기차-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정리하고,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셔틀의 발전 동향과 함께 주요 회사들의 관련 동향과 비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션 1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10/13 목)

세션 1-1

XIA 그리고 디지털 트윈

(10/13 목 13:50~14:20)



신 동 형

전략기획팀장
알서포트

'변화너머', '이노베이션3.0' 저자
LG경영연구원
삼성전자

- 5G와 6G가 가능하게 할 기술혁신인 XIA는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임
- XIA는 실제 물리적 계층과 디지털 트윈인 디지털 정보 계층의 인터페이스인 공간 반영 계층으로 작용하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새로운 모델인 스페이셜 웹의 중추가 될 것임
- 스페이셜 웹의 공간 확장 개념과 함께 디지털 트윈의 역할도 한 단계고도화 시켜 줄 것으로 예상됨
- 본 발표에서는 XIA가 디지털 트윈에 어떤 역할을 하며 XIA가 적용된 디지털 트윈의 모습을 살펴볼 것임

세션 1-2

공간정보와 도시 디지털트윈

(10/13 목 14:20~14:50)



신 상 희

대표이사
가이아쓰리디㈜

위원, 과기정통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위원, K스마트시티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이사, 대한공간정보학회

현실 세계의 디지털 미러링인 디지털트윈은 제조업과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도시 및 국토 관리,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 트윈의 도입과 활용은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사물인터넷(IoT), CCTV, 드론, 라이다, 자율주행차, 모바일 맵핑시스템(MMS), 지구관측위성,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은 과거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구상의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과 5G를 활용한 연결성은 관련 정보의 실시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그리고 시각화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빠른 처리, 최적화,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객체와 현상을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모델링함으로써 가상 세계에 빠르게 재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도시, 국토 문제 또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제공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기술적 발전,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 및 국토 관리 동향, 표준화 움직임, 실제 구축 사례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 디지털트윈의 명암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 1-3

메타버스시대, 새로운 트렌드의 XR 및 디지털트윈 기술

(10/13 목 14:50~15:20)



김 대 희

대표이사
(주)삼우이머션

現 CEO, (주)삼우이머션

(주)삼우이머션의 산업분야 VR,AR,XR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으로 창업초기부터 GIS 및 3D DATA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솔루션 기술 개발에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BEYOND LINK라는 고객맞춤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 및 교육 분야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MXR이라는 전문 산업 직무 훈련용 XR컨텐츠의 산업영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으며 SWXR CAMPUS라는 XR기반 직무훈련 및 인재양성 센터 설립을 통해 XR 기술의 교육훈련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우이머션의 GIS기술 기반 디지털트윈 솔루션인 VARLOS를 통해 산업분야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션 2 국제표준과 디지털 전환 (10/13 목)

세션 2-1

비즈니스의 글로벌 언어 - GS1 표준

(10/13 목 13:50~14:20)



이 현 배

표준협력팀장
대한상의유통물류진흥원
(GS1 Korea)

국제통상팀장/무역인증서비스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위원, ISO/IEC JTC1/SC31(자동식별및 데이터인식기술)
연구원, LG전자 LCD 연구소

식품, 소비재, 헬스케어 등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GS1 표준은 GS1 본부(브뤼셀)와 전 세계 116개국 GS1 회원기관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글로벌 언어(Global Language of Business)」입니다.

GS1 표준 시스템에는 GS1 표준의 대명사인 「바코드」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상거래와 공급망관리(SCM) 실행에 필요한 모든 표준 즉, 상품·물류단위·거래처·서비스의 식별(Identify)을 위한 표준, 기계에 의한 데이터 자동인식(Capture)을 위한 표준, 비즈니스 파트너간 정보의 공유(Share)를 위한 표준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든 SCM 실행,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면 GS1 표준 시스템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GS1의 국내 전담기관(GS1 Korea)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글로벌 GS1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기업의 GS1 표준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션 2-2

GS1 국제표준과 디지털 전환

(10/13 목 14:20~14:50)



김 대 영

교수
전산학부
KAIST

Director, Auto-ID Labs KAIST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이사, Co-founder, Urban Technology Alliance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다양한 이유로 파편화되고, 갈수록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AI,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과 같은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미래 기술과 사회를 위해 굿데이터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전세계 산업계의 노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국제표준식별자와 같은 상호운용중심점(PPI), 국제표준인 BIM/GIS 공간정보, 비즈니스/산업표준인 GS1, 웹 데이터 표준, 모빌리티 인프라, 다양한 산업표준 데이터(예. 조선해양해운항만, 수산, 철도산업, 헬스케어)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전략을 제시합니다.

세션 2-3

GS1 디지털링크/차세대 바코드

(10/13 목 14:50~15:20)



정 만 기

책임연구원
Auto-ID Labs, KAIST

現 책임연구원, Auto-ID Labs KAIST

바코드는 POS 단말기에서 가격을 편리하게 조회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1974년 이후 바코드는 매일 60억회 이상 스캔이 되지만 인터넷의 발달, 모바일 제품의 발달로 인해 바코드는 단순히 가격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나 QR 코드로 바코드 형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된 우리 사회는 현재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소비자나 정확한 제품의 데이터와 공급망 정보에 접근하여 효율성을 최적화하려는 소매업체를 위해 기업들은 제품 정보를 더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제품의 식별, 자동 데이터 캡처, 공급망 가시성, 정보 공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GS1 디지털링크가 무엇이며 차세대 바코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션 3 해양과 물류산업 (10/13 목)

세션 3-1

국내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 구축 진행 현황

(10/13 목 15:40~16:10)



박 기 수

팀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장, 한국조선해양
수석연구원, 현대중공업
현대정보기술

글로벌하게 조선·해운·항만·선급·기자재 등의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플랫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대중형 조선소 및 관련 기관들이 연합하여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범 국가 차원의 산업계간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표준 기반으로 구축을 하여 글로벌 상품으로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표준기반 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여 범 국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션 3-2

해사산업(Maritime Industry)과 국제표준

(10/13 목 16:10~16:40)



박 한 선

해사산업연구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Director, Research Fellow
위원장, IMO 전문가위원회
연구이사,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사법학회

최근 해사분야(Maritime Industry) 신산업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 과거에 규제로 인하여 산업이 위축되던 것을 벗어나 이제는 규제가 새롭게 산업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해사분야에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스크러버 탈황장치,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에 이르기까지 해사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IMO 규제를 기반으로 창출되고 있다.

특히 해사산업은 IMO 규제강화에 따라 강제적으로 설치하거나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제표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이버보안, 해상통신·정보제공, 원격모니터링 등 해양안전정보서비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대체연료 등 대기오염저감기술, 선박운항·조정, 선박유지보수, 화물관리 등 자율운항기술, 선박평형수처리, Biofouling, 선박 소음 등 해양생태계교란방지기술 등 주요 해사 신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IMO, ISO,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션 3-3

항만 디지털 전환 - 부산항 스마트 디지털 트윈 플랫폼

(10/13 목 16:40~17:40)



연 정 흠

실장
부산항만공사
(BPA)

사무관, 부산광역시
위촉연구원, 부산연구원
컨설턴트, Arthur D Little

스마트 항만의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선진 항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부산항에 있어서는 운영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화물하역속도 제고 등 물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만은 24시간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의 정기 운항 스케줄에 맞춰 작업계획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특정 선박의 지체발생 시에도 전체 작업계획의 변경이 어려우며, 특히, 배후물류에 있어서는 화물차량의 최적 도착이 항만의 생산성과 혼잡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산항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항만 내·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한 현재 상황 모니터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선박·항만·배후물류 간 최적 스케줄링을 통해 항만내 하역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수송수단의 지·정체 감소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션 3-4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해운물류 플랫폼 확산

(10/13 목 17:10~11:00)



이 주 완

상무
아르고마린토탈㈜

R&D센터장, 아르고마린토탈(주)
공인해사검정인, 한국검사정공사
공인해사검정인, 해외검정공사

해운물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기술 혁신 속에서 규격화된 컨테이너 운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형 선사와 물류 업체들이 해운물류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해운물류 플랫폼이 가져온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비컨테이너인 벌크 운송에서의 적용 한계점을 개선하고 현장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해운물류 플랫폼에 대한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항만의 디지털전환을 위하여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수의 참여자 확보와 업무 협업을 통한 최적화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확산 전략을 제시 합니다.

세션 4 주소혁신산업 (10/14 금)

세션 4-1

스마트 주소정책

(10/14 금 10:30~11:00)



고 종 신

사무관
입체주소TF팀장
행정안전부

이사, 대한지적학회
전문위원, 공간정보표준 기술위원회
共著 '주소로 연결된 세상' (고종신, 양성철, 김지영)

국가를 구성하는데 있어 주소는 어떤 의미였고 역사적으로 주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통호 → 지번 → 가구번호 → 도로명 → 도로명주소 → 사물주소 → 공간주소)해 왔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주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새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하려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주소정보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부의 추진계획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주소정책에서 주소정보(주소정보 참조체계, 국가주소정보, 주소지능정보)의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추진하려는 정부정책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세션 4-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마스터키, 디지털주소정보플랫폼

(10/14 금 11:00~11:30)



양 성 철

교수
부동산지적학과
대구대학교

위원,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정책자문위원회
이사, 대한공간정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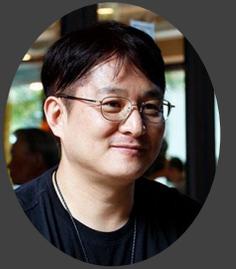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을 연결해 효율을 추구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서 부처별로 보유한 데이터 자원 간의 융복합 분석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공공데이터 전략이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활용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아왔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정책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소정보는 국가기준데이터이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건축물대장 등 국가 주요 공적장부에서 행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모든 데이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기준 식별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로 쉽게 가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시행하면서 주소정보가 모든 행정의 디지털대변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주소정보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주소정보플랫폼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션 4-3

데이터 산업에서 주소의 중요성과 가치

(10/14 금 11:30~12:00)



김 학 래

교수
문헌정보학과
중앙대학교

Director, HIKE 연구실
위원, 공공데이터 전략실무위원회
Co-Founder, Open Knowledge Korea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진부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의 정부·민간에서 데이터는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연결하는 데 있어 기준점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정책적 차원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 데이터는 국가 전반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데이터의 기반이며,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국가 데이터로서 주소의 역할과 가치를 논의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주소의 산업적 활용 방안, 표준을 통해 고품질 주소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소개합니다.

세션 5 스마트시티 (10/14 금)

세션 5-1

부산시 디지털 경제 정책과 스마트시티

(10/14 금 13:50~14:20)



오 동 하

선임연구위원
부산연구원(BDI)

부산시 정보화위원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 재개발, 제2센터 개발, 사상 스마트시티와 같은 도시재개발과 연계된 ICT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신도시에 적용가능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시연하는 시범단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부산시 7대 전략 산업과 연계된 부산시 디지털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션 5-2

부산 EDC 국가시범도시의 미래

(10/14 금 14:20~14:50)



유 인 상

상무
스마트SOC담당
LG CNS

부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학회
위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부산 국가시범도시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위기에 처한 부산 광역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개방형 데이터허브 기반의 시민 중심,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 최고의 민간과 공공의 통합모빌리티(MaaS) 구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의 미래 상도 제시해보겠습니다.

세션 5-3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사업

(10/14 금 14:50~15:20)



김 준 수

디지털혁신본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위원, 부산시 정보화 위원회
위원,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MP단

국내외 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 기술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분야의 기술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부산시는 스마트시티의 실용적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과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실제 도시와 유사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시티 LAB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트윈기반 스마트시티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과제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션 5-4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와 함께 하는 국제표준 생태계

(10/14 금 15:20~15:50)



이 영 중

실장/책임연구원
KAIST

부사장, (주)케이엔비즈
전략기획실장, 덕산벤처어스(주)
상무, 한국라이브교육방송(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단지로서 21년말부터 5년간 무상 임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미래형 주거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혁신기술을 실증, 체험하고 피드백하는 리빙랩입니다. 스마트빌리지에서 검증된 기술과 데이터는 에코델타시티 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스마트빌리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산업 분야 국제표준 GS1 식별자와, 데이터/서비스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도시 데이터와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주소기반 로봇 배송 서비스와 스마트 서비스 연동 및 디지털 트윈 실증 등 적용하고 있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세션 6 수산업 (10/14 금)

세션 6-1

지속가능한 어업과 IT기술

(10/14 금 16:10~16:40)



박 두 현

매니저
오션아웃컴즈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유공 표창
Senior Officer, 세계자연기금(WWF)
전문위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근해 TAC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르는 생선과 수산물들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잡아서 누구의 손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까지 오르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소비자들의 눈이 닿지 않는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은 자칫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기도 하며,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어업 정보의 투명성과 수산물의 이력추적성이 없이는, 지속가능하게 어획된 수산물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어업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업자들의 수기보고에 의존하여 어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최근 IT기술들이 어업에 적용되면서 더욱 투명한 어업, 추적가능한 수산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인 어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IT기술들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세션 6-2

수산업 동향과 정책

(10/14 금 16:40~17:10)



마 창 모

수산업구분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위원, 수산혁신특별위원회/농어촌특별위원회
기획위원, 세계해양포럼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관리 TF 위원,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글로벌 벨류체인 변화, 메가 FTA의 확산, WTO 협상 타결, 신냉전체제 등 거시 환경변화가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수산업에도 응용, 적용되면서 수산업의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는 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수산업 대응 방향과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수산업,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합니다.

세션 6-3

국제수산물 이력추적 표준

(10/14 금 17:10~17:40)



윤 원 득

Staff Engineer
삼성전자

테크에반젤리스트, 데브크래쉬

식품 안전 및 식품 사고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는 식품 이력추적 제도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식품에 비해 생산지와 소비지가 상이하고, 중금속/방사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산물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국가간 경계를 넘어 상호운영이 가능한 국제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국제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위해서 국제 표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국제 표준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국제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GS1의 수산물에 대한 식별체계 표준, 주요이력추적 정보체계 표준, 서비스 접근체계 표준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GS1 국제 표준 기반의 GDST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며, 국제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목표를 제시합니다.